

세금-상품-선물을 넘어 커먼즈금융

김지음 (빈고 책임활동가)



자본에서 공유지로! 공유/자치/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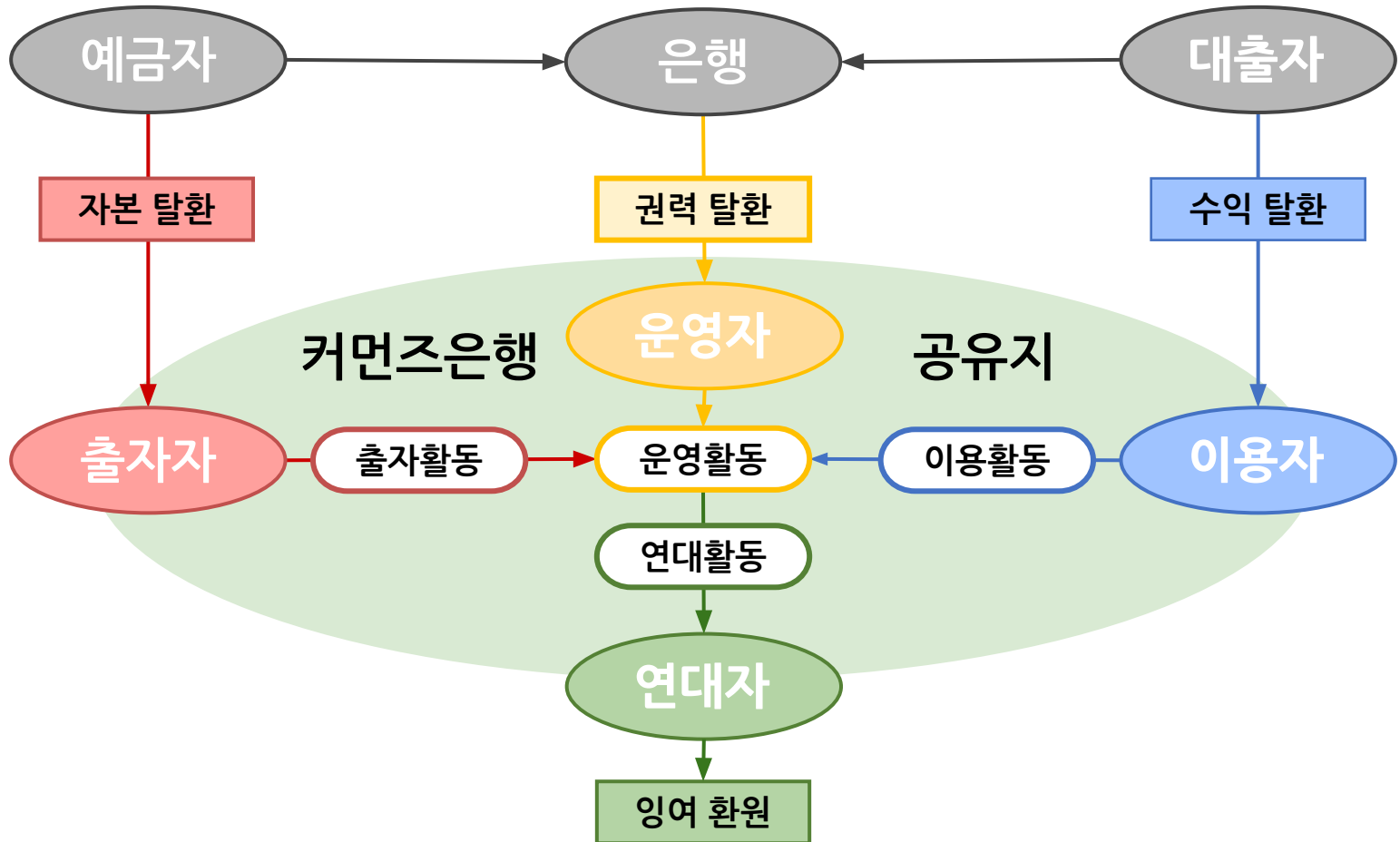
공동체은행 빈고

공동체은행 빈고

- 2008년 서울 해방촌 주거공동체 빈집 시작. 빈가게, 빈마을로 확장.
- 2010년 빈마을의 보증금과 출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빈마을금고로 시작.
- 여러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들의 금융협동조합으로 확장.
- **2024년 11월 현재** 조합원 518명, 공동체 39개, 공유지 16개
- 자산 5.8억빈, 출자금 3.5억빈
- 누적 잉여금 1.6억빈
- 누적 공유지(공동체공간) 63곳
- <https://bingobank.org/>



커먼즈은행



공유상태표 : 공유지 = 공유자



공유지			
공동체공간		공유자원	
공유주거협동조합		예치금	
이층집	공동		
연구자의집	홍성빈땅	조합원이용	공동체활동
들	임의집	출자자이용	공동체회원
경의공유지	웬자족	공통	공유인권

공유자			
출자자		적립금	
출자자1	출자자2	출자자3	출자지지금
출자자5	출자자6	출자자4	당기잉여금
	출자자7	출자자19	
출자자8	출자자10	출자자20	빈고적립금
	출자자11	출자자21	
출자자9	출자자12	출자자22	공동체
	출자자13	출자자23	
출자자14	출자자15	출자자24	건강계
출자자16	출자자17	출자자25	다르또같이
출자자18	출자자19	출자자26	해초삼들
출자자20	출자자21	출자자27	홍성키
출자자22	출자자23	출자자28	공유방
출자자24	출자자25	출자자29	솔방
출자자26	출자자27	출자자30	국경을넘는
출자자28	출자자29	출자자31	연구...
출자자30	출자자31	출자자32	은평민중
출자자32	출자자33	출자자34	커...
출자자34	출자자35	출자자35	해이
출자자36	출자자37	출자자36	모스
출자자38	출자자39	출자자37	빈땅조합
출자자40	출자자41	출자자38	출...
출자자42	출자자43	출자자39	이...
출자자44	출자자45	출자자40	이...

국가의 타입과 교환양식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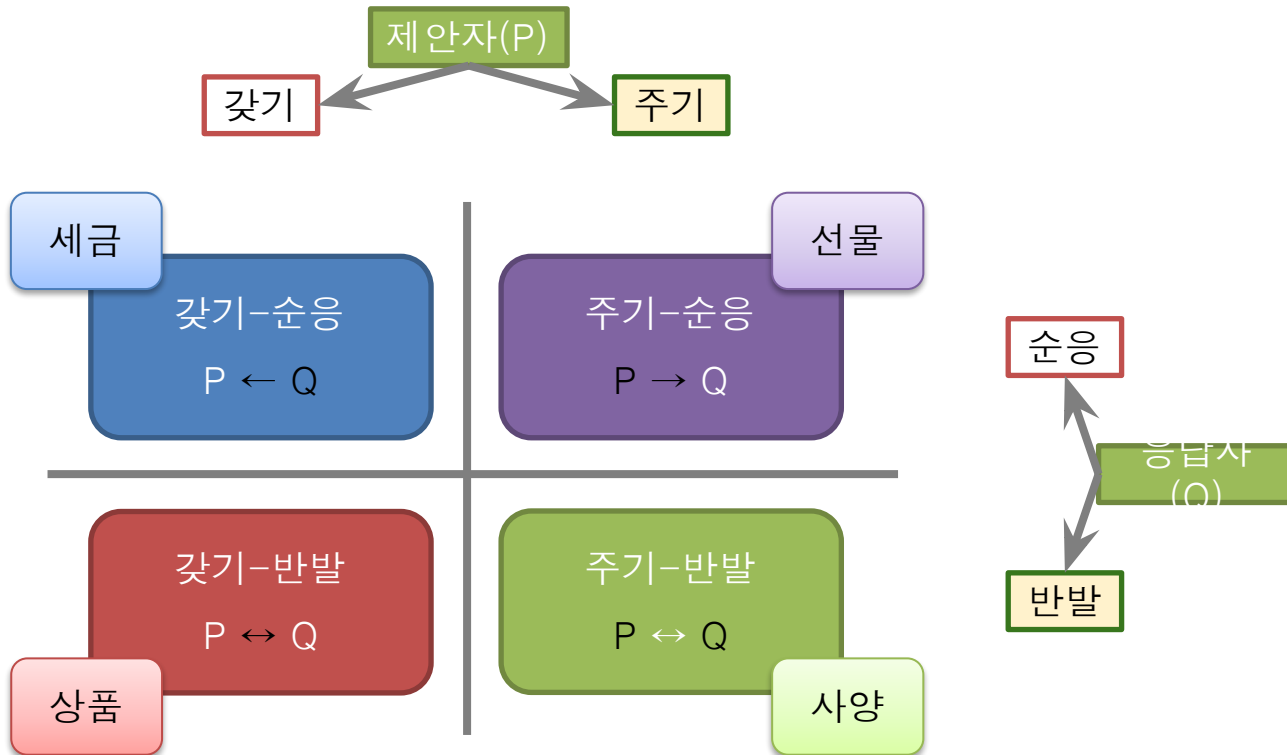


<국가의 네 가지 형태 (츨스키, 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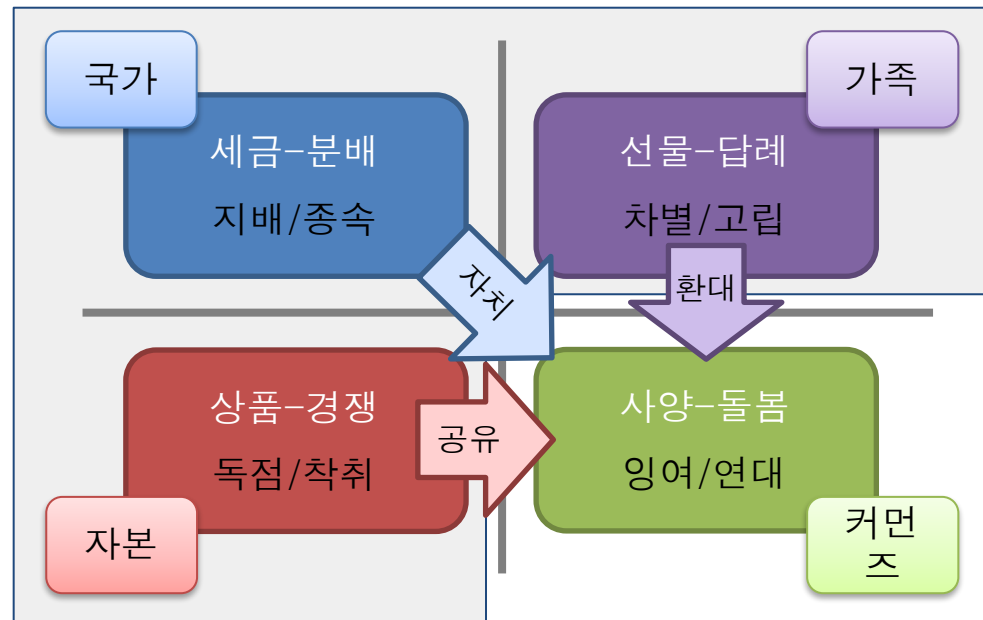


<교환양식론(가라타니 고진)>

교환의 분해 : 제안과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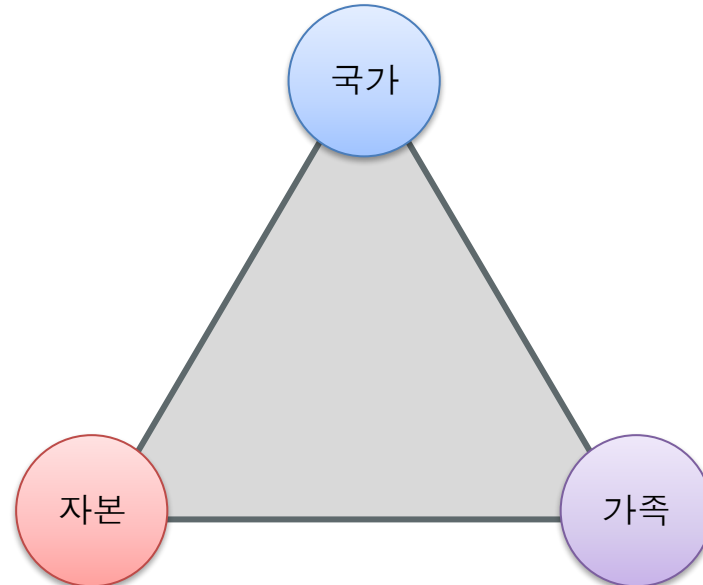


네번째 교환양식 : 사양으로 만드는 커먼즈



자본=국가=가족의 삼위일체

- 자본=국가=가족은 각각 상품-세금-선물 교환을 고유한 기반으로 하고 있음.
- 시대와 상황에 따라 어느 한 쪽이 지배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소멸되거나 대체될 수 없음.
- 현실에서 자본=국가=가족은 서로 보완적이고 복합적으로 얽혀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음.
- 삼위일체는 커먼즈를 위협하고 수탈하는 시스템이기도 함.
- 삼각체제는 공고하고 외부를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세금교환에 기반한 국가

- 가라타니 고진의 표현대로라면 국가는 수탈-재분배의 교환양식에 기반한 것.
- 다르게 표현하자면 세금을 걷고, 세금을 사용하는 세금교환에 기반한 것.
- 수탈이 교환인 것은 상대의 순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
- 지속적인 수탈을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재분배가 이뤄져야 함.
- 답례가 역방향의 선물인 것처럼, 재분배는 역방향의 수탈.
- 조세에 저항하고, 예산은 우리편으로 끌어오는 것이 국가를 대하는 기본 자세
- 국가는 모두에게 세금을 걷기 때문에, 모두에게 세금을 분배해야 하는 보편적인 입장에서 됨. 평등과 공정.
- 모두에게 세금을 걷을 수 있다면 이를 전제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재정정책을 펴는 것도 가능해짐. 보편적인 부양자 또는 보편적인 화폐 발행자로서 국민의 의무를 요청
- 자본의 독점과 착취, 가족의 폐쇄와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역할이 국가에게 있음



[그림 4]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과 국민부담률 간 관계(2018년)

(단위: %)



주 1. 호주와 일본은 2017년 데이터, 그 외 36개 국가들은 2018년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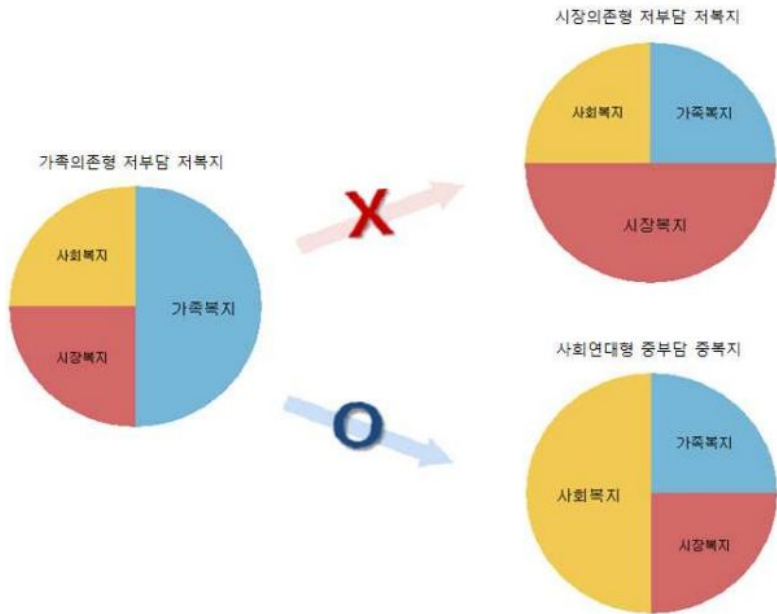
주 2. 그래프의 회색 선은 OECD 전체 38개국의 국민부담률 및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평균

주 3. 파란색 선 그래프는 1991년부터 2018년까지의 한국의 변화 추이이며, 노란색 선 그래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사회보현 수지균형 국민부담률'과 사회보장위원회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전망 결과를 2020년부터 10년 단위로 2060년까지 연결한 추세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와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국회예산정책처,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2020
사회보장위원회,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2020

국회예산정책처,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보고서

<중부담·중복지 복지국가의 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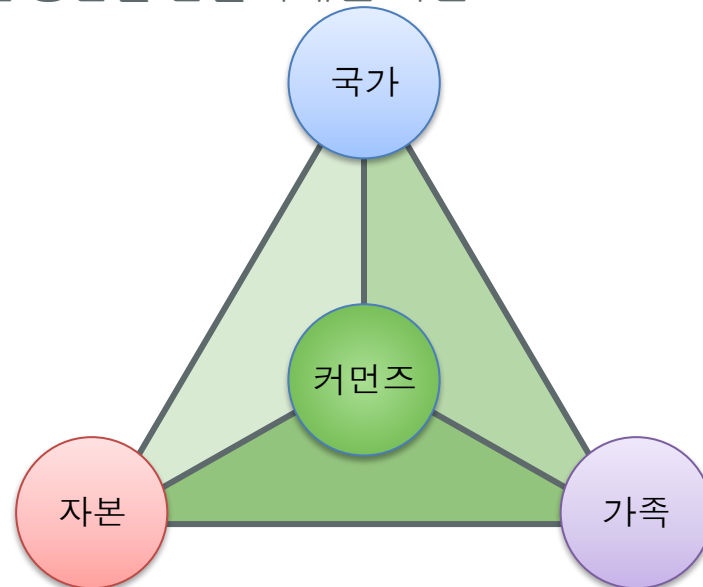


국가를 커머닝하기 : 세금교환 □ 사양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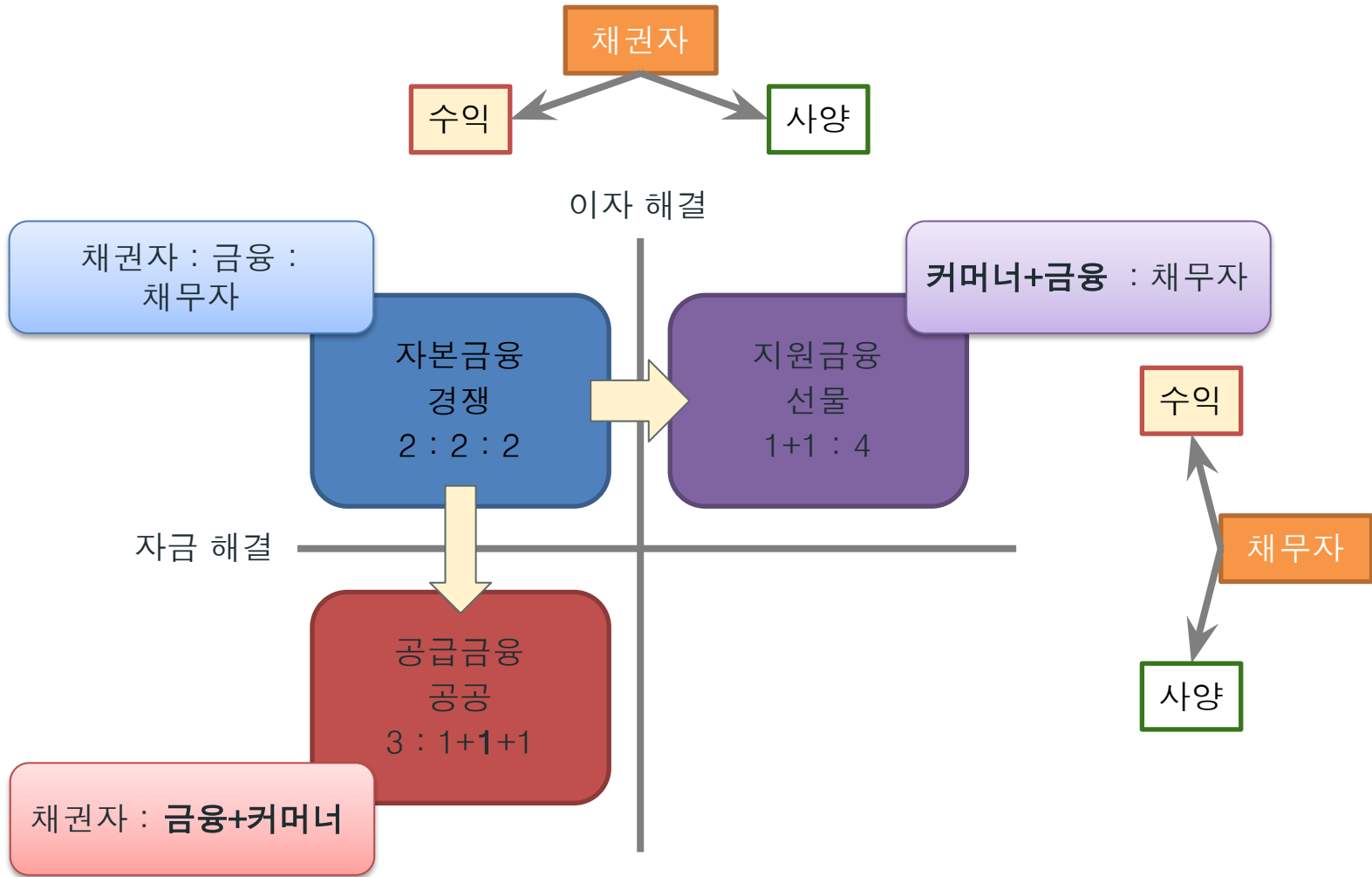
- 모두를 수탈해서 생긴 공동의 자원이라면 공동의 것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커먼즈의 논리가 성립할 수 있음.
- 세금이 커먼즈로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인 것은 사실이지만,
- 세금을 활용해서 만든 커먼즈가 여기에 접근하기 어려운 누군가에게는 그저 국가에 의한 세금 집행 또는 세금 낭비로 보여질 가능성.
- 세금을 활용해서 만든 커먼즈가 국가의 지속적인 조력이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가능할 것인가? 국가의 변동에 의해서 좌우되는 커먼즈?
- 세금교환의 전환 가능성
 - 조세정의 : 자본수익의 재분배. 불평등의 해소
 - 참여예산 : 세금 집행의 권한을 돌려주기
 - 자치 : 커먼즈의 생성을 보조하고 축소되는 국가
 - 저항 : 부당한 수탈에 거부하기
 - 분담 :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기
 - 커먼즈에 자발적으로 공유하기

사양교환에 기반한 커먼즈

- 사양교환의 특이함은 다른 세가지 교환과 다르게 모두가 사양하기 때문에 모두의 것으로 남아 있는 커먼즈가 있다는 것.
- 소유자가 정해져 있는 상품, 세금, 선물 교환과 달리 아무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모두에게 속하고, 외부에 열려 있는 공동자원체제
- 다른 국가, 자본, 가족에서 시작하고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만, 다른 층위에 자리함으로써 입체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커먼즈?



커먼즈금융



커먼즈금융

